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0월 11일(금)
---(윤력 9월 9일)---
Пятница
11 октября 2024 г.
№ 40 (1210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9일 한글의 날 맞아 지난 4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글쓰기 학생들의 행사에서. (이예식기자 촬영)

<지방 교사>프로그램에 따라 사할린주에 23명의 교사 파견

전 러시아 우수교사들이 사할린주의 외딴 지역과 작은 마을들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지방 교사> 프로그램에 따라 23명의 교사들이 경연을 통해 선발돼 사할린에 파견되었다.

사할린주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을 환영하며, 사할린 교육개발원에서 만남을 가진 가운데 "알레리리마렌코 주지사는 청년전문가들을 유치해 지역 외딴 마을을 발전시키도록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높은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유치하여 교사가 부족한 외딴 마을들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할린주는 교사들을 위해 자녀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학급지도 및 자격증 획득, 주택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추가 사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경연에 연해주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 케메로워주, 아무르주, 부랴치야 공화국 등 43개 행정자치단체들에서 교사들이 참가했다. 선발된 교사들

은 러시아어, 생물, 수학, 화학, 지리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우수리스크의 러시아어 교사 이리나 미로슈니크는 이미 트로이츠크에 마을 5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사할린으로 이주한 것은 과감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직업적 사명이기도 했다. 우리는 어린 아들과 함께 왔고, 남편과 큰아들은 아직 우수리스크에 남아있다. 좋은 조건 속에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임대료의 절반이 보상된다. 앞으로 사할린에서 대출을 받아 계속 살 계획이고, 이미 수당을 받아 1차 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이리나 미로슈니크 교사가 말했다.

<지방 교사> 연방 프로그램은 <교육>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사할린주는 이 프로그램으로 94명의 교사들을 유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외딴 지역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유치하도록 2030년까지 이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추진을 지지했다.

<나방> 일반 드론, 사할린에서 시험비행 성공

사할린에서 '브라쥬니크(나방)'라는 새로운 무인기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목적 드론은 10kg까지 무게를 탑재할 수 있는 다기능적 용도를 제공하고 있다.

무인기는 가스분석기, 레이저 스캐너, 열화상 카메라, 무선 통신장비를 포함한 여러 장비들을 탑재할 수 있다. '브라쥬니크'의 탁월한 점 중 하나는 시험비행 중에 확인된 60분이라는 효율적인 비행시간이다. "'브라쥬니크'는 국내 무인기 분야의 새로운 첨단장비로서 다기능성, 장시간 비행, 높은 소음 소거는 우리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적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지역과 국가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명확한 요소이다."라고 사할린주 디지털 및 기술개발부 알렉산드르 스테기료브 장관이 말했다.

'브라쥬니크' 드론은 지역 물류 과제 해결과 작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이용할 계획이다. 이 드론의 접이식 구조는 신속하게 비행을 하게 하고, 접을 시 크기가 작아 운반도 편리하다. 혁신적인 드론 개발에 지역 디지털전환센터 직원들의 공로가 크며, 이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높은 잠재력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단신

사할린, 우화 포럼에서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 홍보

사할린주가 우화에서 진행되는 '러시아는 스포츠 강국' 포럼에서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홍보한다고 포럼 홍보부가 전했다.

지역 동계스포츠 스타일로 장식된 전시대에서 방문객들은 2025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될 동계스포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대회에 러시아와 중국의 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동계 스포츠 9개 종목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메달을 두고 크로스컨트리 스키, 쇼트트랙,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 알파인 스키, 피겨 스케이팅, 스키 점프, 노르디 복합(스키점프 +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경기를 펼친다. 경기 관람객들은 스포츠 경기만 아니라 문화축제로서 서민적 놀이, 체험교실, 러시아와 중국의 간식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는 양국 간 스포츠 교류의 중요한 전통이다. 2016년에는 하얼빈에서 개최됐고, 2018년에 우화에서, 2022년에 장춘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사할린주에서 그 전통을 이어 개최한다.

사할린, 10월 12일

<자기를 나타내>

예술제 결승전 개최

10월 1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영화관에서 '노래 및 음악 그룹' 부문에서 제14회 <자기를 나타내> 예술제의 결승 단계를 위한 공연이 열린다.

솔로 가수, 듀엣 및 그룹의 가장 재능 넘치는 음악인들이 결승전에서 우승을 위해 경쟁을 치른다. 참가신청을 한 약 70명의 참가자 중 20명만이 예선과 준결승을 통과했다. 클래식부터 현대 히트곡까지, 창작곡에서부터 커버곡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곡목들이 포함돼 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고, 노래 및 저작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연을 평가한다. 관람은 자유며, 공연 시작은 15시다.

<동전주간>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잔돈 바꿀 수 있어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동전주간> 전국 행사를 진행한다고 러시아 국립 극동은행 사할린 지부가 밝혔다. 사할린과 쿠릴주민들은 수수료 없이 누적인 잔돈을 지폐로 교환하여 은행 계좌에 충전할 수 있다. 1997년 이후에 발행된 모든 동전을(변색, 구부러짐, 긁힘, 구멍이 난 경우 포함) 접수하며, 동전은 편리를 위해 단위별로 분류하는 게 좋고, 은행 방문 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동전주간 행사는 3번째로 진행돼 지난해 사할린 주민들은 50만 루블리가 넘는 14만3천 개 이상의 동전을 교환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든든한 건설기업인 권수용 유노사할린스크 '명예 시민'

지난 9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부터 '명예 시민'칭호를 세 분이 받은 가운데 한 분이 사할린동포 2세인 권수용 '오스토브'회사 대표였다. 소식을 접하자마자 필자는 이분과 연락을 통해 인터뷰 날을 잡았다. 그런데 주인공이 워낙 바쁜 분이어서 인터뷰가 몇 차례 미뤄져 드디어 인쇄에 들어가기 전날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1946년생의 권수용 사장은 78세로 매우 건강해 보였다.

부모의 고향은 안동이다

그는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권'씨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고, 그의 어머니 '우'씨(양반가문)도 역시 안동 출신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양쪽 양반 집안이었으며, 조상은 임금님 곁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나랏일을 그만둘 때 권수용씨의 외할아버지는 안동에 내려가 양반 집안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권수용씨의 부모님의 혼인은 양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이어졌다. 그의 부모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 1936년에 일본 측 노동 모집으로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돈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지식이 있는 분이었고, 전공도 있어서 대장장이로 일했다. 그런데 일본은 1942년에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해서 권수용 씨의 아버지를 일본 규슈로 데려갔다. 3년이 지나서야 그는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사할린에 남은 가족이 다 죽었다. 소련군들이 일반 주민들 모두를 죽였

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믿은 이종징용의 사할린 한인 다수가 곧바로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내와 딸 셋을 사할린에 둔 권수용 씨의 아버지는 한인 20명 중 한 분으로서 일본에서 작은 배를 찾아 타고 사할린까지 오게 되었다.

'가족의 묘지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코르사코브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가족이 사는 보쉬냐코워 마을까지 걸어서 일주일 간 갔다. 가족이 살던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엄마처럼 규슈로 남편을 보내고, 얘기 두셋 있는 젊은 여자들이 꽤 많았죠. 모두들 힘들게 살았죠."라고 권수용 씨가 말하였다.

아버지는 회갑잔치도 하지 못하고, 1972년에 나이 59세에 심장병으로 급히 가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항상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외로워 하셨지요."라고 권수용 사장이 말하였다.

이후 어머니도 10년 후에 돌아가셨다. 부모님 두 분 다 고국의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1992년에 그는 친척의 초대로 큰 누나와 함께 부모님의 고향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는 판이들이었다. 마을에서 만남의 잔치를 했을 때 다들 노래 한 곡씩 부를 기회가 있었다. 권수용 씨가 차례되었을 때 그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주 부르던 노래 '타향살이'였다. 권수용 사장은 필자에게도 이 노래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정말 애절함이 담



권 노래다.

첫 방문 이후로 권수용 사장은 거의 해마다 부모님의 고향 안동을 찾았는데 최근 4년은 코로나19와 국제적 사정으로 직항 없어 한국에 가지 못했다.

1, 2, 3 급 '광부 영광' 메달로 포상을 받은 유일한 사할린한인

권수용 씨는 보쉬냐코워에서 조선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레소고르스크 조선학교 7년제를 마치고, 우다르노예 조선학교 10년제를 졸업했다. 부모님은 계속 보쉬냐코워에 살고 있었고, 당시 조선학교 4년제 밖에 없어서 우다르노예, 레소고르스크 학교들에서 기숙하면서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조선 사람은 조선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보쉬냐코워에서 본업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문교육도 그와 관련해 배우기로 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광업기술전문학교에서 광업을 배운 후, 보쉬냐코워에 돌아가 광업 전문가로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4년을 일하다가 그는 이르쿠츠크공과대학에 입학했다. 아버지가 아들이 대

학에서 공부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권수용 씨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공부를 겨우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했다. 통신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대학들에서 이미 공부하는 두 여동생들을 뒷받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통신으로도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나중에 탄광에서 우차스토크 책임자로 활약할 수 있었다.

탄광에서 일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곳은 정말 힘든 노동, 열악한 조건, 그리고 강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권수용 씨는 여기에 여러 사건과 사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메탄 폭발 사건도 있었고, 다행히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큰 사고로 생명을 잃은 탄부들이 몇 명 있었다.

"탄광에서 일해본 이상 지금은 아무 것도 겁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받게 된 여러 표창장들은 1, 2, 3급 '광부의 영광'휘장이다. 권수용 씨는 사할린 한인 중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메달 모두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06년에 그 당시 부지사로 일했던 세르게이 세레데킨이 언급한 바 있다.

사회시설 건설로 알려진 '오스토브'회사

"세르게이 세레데킨이 부지사가 되기 전에 '사할린우물리'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탄광이 문이 닫힐 때 은퇴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 얘기를 나눴지요. 부지사는

바로 '앞으로 건설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시설, 새 주택도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라고 권수용 사장이 말하였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스토브'회사를 설립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 사업으로 그동안 18개의 대규모 주요 사회적 시설을 건설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만 아니라 홈스크, 오하, 아니아 등 지역들에서 병원, 학교, 유치원, 재활 치료 센터, 정신환자기숙센터 등을 건설해왔다. 그는 홈스크 구역에 양어장도 운영하고 있다.

그와 나눈 몇 마디의 말에서 얼마나 많은 일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파란 많은 삶이 담겨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때 연방 의회 의원 고문으로서 사할린 및 연방 사회정치활동가들에게 나름 돕기도 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을 계속 돕고 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한 분으로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장기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도 재정적으로 돕고 있다.

"아내가 시한인회 회원입니다. 합창단도 다니고, 노인정 어른들을 위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 도울 수가 없지요."라고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는 권수용 대표에게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 그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도 그는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배순신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볼셰비크산으로 등산에 1000명 넘는 사할린 주민들 참가

제9회 전국 걷기의 날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어 전례대로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주민들 10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해 볼셰비크산에 올랐다.

스포츠와 의료 분야의 대표자들이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건강유지를 위해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걷기 코스는 '고르니 워즈두흐' 산악스키단지 하부역부터 중간역까지 거리가 약 4km였다. 산을 오르기 전 모든 참가자들은 기본 체조로 몸을 풀었고, 대회 마무리로 참가자들에게 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행사에 오락 프로그램과 다과 나눔, 퀴즈대회 음악 그룹의 공연도 빠지지 않았으며, 스포츠 행사에 자녀를 데리고 참가한 가족들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편하고 즐거운 행사의 정서를 만끽했다.

Около 1000 сахалинцев пешком поднялись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IX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ходьбы,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равший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этот раз около 1000 человек пешком поднялись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портивн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ы,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ходьбы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здоровья. Маршрут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4 км пролегал от нижней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обратно. Перед началом подъем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а разминка, а по завершении - диплом и сувениры.

Праздник сопровождалс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угощениями, викториной и выступлением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Участники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в том числ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отметили доступность и приятную атмосферу события, позволяющую зарядиться энергией и насладиться осенними видами.

<강철 같은 의지> 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

10월 5일(토) <2024 강철 같은 의지> 중세와 고대 문화 연례 축제가 가가린 시공원에서 펼쳐졌다. '스키프(Skolot)' 역사 속 펜싱 클럽의 사할린 투사들은 결투로 최강의 검투사를 결정하고,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장에서는 누구나 활을 쏘아보고, 갑옷을 입어보며, 중세시대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은 과거의 분위기 속으로 방문객들을 빠져들게 했다. '스키프' 역사 속 펜싱 클럽의 멋진 결투들이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검투복을 완복한 6명의 검투사들이 최강자의 명성을 두고 결투를 벌였다. '검의 길'클럽은 19세기 유럽의 사브르 종목에서 펜싱의 기술을 선보였다. 관람객들 중 누구나 결투를 위한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자신의 결투 실력을 발휘해보며, 특별 포토존에서 검투복을 입어보기도 했다.

결투와 더불어 축제에서는 활쏘기의 기초를 배우고, 숙련된 댄스 강사의 지도 아래 프랑스와 벨기에, 스코틀랜드의 중세시대 춤을 익힐 수 있었으며, '여우와 거위'와 '방앗간' 고대 놀이를 해보고, 중세시대의 요리를 맛보며, 박람회에서는 독특한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

축제의 절정은 파이어업(FireUp) 예술단과 '신들림' 불쇼 극장에서 온 알렉세이 집니코브가 펼치는 화려한 불쇼로 이어졌다. 예술인들은 기억에 남을 불검 결투와 불검의 묘기로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Железная воля»

5 октябр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 А. Гагарина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средневековой и древне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Железная воля-2024». Сахалинские бойцы клуб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ехтования «СКИФ» определили сильнейшего рыцаря. Также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стрелять из лука, приме-

рить доспехи, попробовать еду прошлых времен.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погрузила гостей в атмосферу прошлого. На ристалище развернулись зрелищные поединки клуб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ехтования «СКИФ», где шестеро бойцов в полном облачении сражались за звание сильнейшего. Клуб «Путь меч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мастерство фехтования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саблях XIX века.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боях на мягком снаряжении и примерить доспехи в специальной фотозоне.

Помимо поединков, на фестивале можно было научиться основам стрельбы из лука, освоить средневековые танцы Франции, Бельгии и Шотланд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ого мастера, сыграть в старинные игры «Лиса и гуси» и «Мельница», отведать блюда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ухни и приобрести уникальные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на ярмарке.

Ку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яркое огненное шоу от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FireUp и гостя из Театра огня «Одержимые» Алексея Зимникова. Артисты поразили публику виртуозным владением огнем и незабываемым боем на горящих мечах.

<금빛 가루>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대형 행사장에서 <금빛 가루> 노인세대를 위한 창작축제가 진행되었다고 공공구역 홍보부가 전했다. 사할린의 다채로운 재능들을 반영한 행사는 자체의 다양함으로 풍성했다.관객들은 '나제즈다(희망)'민속 합창단, '나쉬 페스니(우리의 노래)' 노인합창단, '루스카야 두샤(러시아의 마음)' 참전용사 및 전쟁시절 아이들의 민속합창단, '사할린 무용의 세계'사회운동 합창단, '라비누슈카(작은 마가목)'합창단의 공연을 즐겁게 관람했다.

축제는 노인세대가 추억을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교제를 위한 최고의 행사장이 되었으며, 따뜻한 분위로 오랫동안 기억될 행사가 조성됐다.

(8면에 계속)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주 발전에 기여한 한인 소개

지난 10월 5일(토)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주최로 사할린주 일반 과학 도서관 강당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전에 기여하는 사할린한인'이란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은 시한인회 임원 최 안나는 우선 세계 한인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10월 5일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며, 재외 한인의 권익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현재 한민족의 인구는 약 8천460만 명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천만여 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천 500여만 명, 해외에는 약 750만 명이다. 구 소련 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는 약 50만 명이 살고 있다. 사할린에는 현재 약 2만6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전하며 최 안나 진행자는 이날 행사 주인공들로 사할린주 명예 광부인 조영제 어르신,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 시민이자 '오스토브'건설회사 대표이사 권수용 씨, 사할린 건축가 이채인 씨를 무대에 모셔 이야기를 나누었다.

1932년 경상북도의 출생인 조영제 어르신은 10살 때 부모와 함께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 그는 한평생 보쉬냐코워 마을에서 살았고, 몇 년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

했다. 어르신이 47년 동안 탄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는 바로 그가 사할린의 명예광부 칭호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날 모임에서 그는 지방 조선학습소 담당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오스토브'건설회사 설립자인 권수용 씨는 보쉬냐코워 출신으로 역시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탄광에서 일할 때 많은 표창장을 받았고, '광부의 영광'메달 1,2,3급 모두를 받았다.

탄광에서 은퇴한 후 '오스토브'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주로 사회적 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즉 학교, 병원, 양노원 등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부모님의 고향인 안동에 대해 이야기 하며, 영주귀국 문제도 언급했다.

동포 2세 이채인 씨는 한평생 건축가로서 활동하였다. 로스토브-나-도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할린주 설계건축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90년대 말기엔 '피라미드' 건축설계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은퇴한 그는 이날 자신의 설계로 건설된 유치원, 법원 등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사할린한인 2세문제 추진으로



사할린한인사회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는 다과회로 마무리했는데 다과회 때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과 정담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장인들의 박람회' 열려

지난 4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인들의 박람회' 열렸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추진하는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기획은 사할린주 정부 장려금 지원으로 진행된다. '장인들의 박람회'개막식에서 사할린 주정부 사회소통국 예고르 움노브 국장은 사할린에서 한민족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데 대해 행사 주최 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내 교육기관, 문화 및 스포츠 단체들인 사할린국립대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어문감나지아, 제2감나지아,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돌린스크 청소년창작회관 학생,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 팀 단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도르나도'스포츠클럽과 코르사코브 '에진스트워(단결)'

클럽의 태권도 선수 총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체험행사로 젓가락에 나전칠기를 하였다. 이에 앞서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의 학장인 임 엘비라 한국어 교수와 외국어·한국과 학장인 코르네예와 인나 한국어 교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나전칠기 유래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임 엘비라 교수는 본인이 나전칠기 기술을 BTS의 솔리스트 지민의 마이크를 장식한 장인에게서 배웠다는 얘기도 하였다.

이날 나전칠기 활동교실은 사할린국립대 동양학과(한국어교사, 한국학 전공)교사와 학생들이 진행했다. 자기만의 독특한 젓가락을 장식하게 된 학생들은 매우 기뻐하며, 자기 손으로 장식한 젓가락은 '장인들의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또한 이날 '장인들의 박람회' 앞서 그림



그리기 및 한글쓰기 활동교실도 진행되었다.

(취재: 글/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이예식)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현재 수리를 포함, 780개 이상의 주택가 보수공사

사할린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주택가(웅덩이)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올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784곳의 주택가를 보수공사했다

사할린주 주택공사사업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은 "올해 주택가 보수공사는 주요 공사의 최적의 대책이었다. 주요 공사는 상당히 고가가 드는 관계로 현재 보수공사는 장기간 기다림 없이 아스팔트 포장 복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택가 보수공사는 2021년부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리해야 할 주택가 수는 매해 변동되고 있다. 2021년에는 지역에서

686곳의 주택가를 수리했다면, 2022년에는 1022곳으로 주택가 공사가 늘어났고,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로 1300곳 이상의 주택가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코르사코브 시지구는 올해 주택가 보수공사량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이곳에서는141곳의 주택가에서 훼손된 아스팔트 포장을 복구했다. 사할린의 남부 지역들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129곳, 흠스크 119곳의 주택가들을 보수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북부 지역에서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서 61곳을, 오하에서 37곳의 주택가를 보수공사해 선두에서 있다. 사할린주에서 주택가 주요 보수공사 일환으로 곧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 현재까지 계획된 201곳의 주택가 보수공사 중 136곳을 공사했으며, 이외에도 <1000개 주택가> 연방 기획에 따라 주택 출입 구역의 공사도 완료되고 있다. 계획된 11개 출입 구역 중 10개 출입 구역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주택과 도시환경> 국민기획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전국투표를 통해 선정된 공공장소 20곳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정비공사를 진행한다. 그중에 마카로브의 휴식 구역, 노글리키의 '자스타와'공원, 우글레고르스크 포베다 거리의 소공원 등에서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시인의 거짓말 / 김승희

하늘의 별은 내가 다 심었지
시인은 가끔 거짓말을 하네
하늘의 별을 포기 포기 심느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지
흙 묻은 손을 보여주며 밤새워 어둠 속에서 밤 일하던 시인
손톱 밑에는 반짝이는 별의 금물이 들었네

마취총에 맞아서 하루하루 비틀대며 가는 사람들
불안의 마취총에 맞아, 분노의 환멸에 마취총에 맞아
늑골이 너덜거리는, 녀마의 몸으로
너덜거리며 거리를 내려갈 때
마취는 사라지고 총알만 남아
쓰러진 술병에 갇혀 나뉘려는 얼굴이 파란 황폐의 환자들

시인은 가끔 거짓말을 하네,
지상의 짙은 내가 다 키웠다고
희망은 잉크보다 피에 가까운 물이고
피에는 이름이 있다고
논밭 사이사이를 찰랑찰랑 흘러가며 상냥하게 인사하는
심장의 더운 물,
태양과 비와 바람이 하는 일을 내가 다 했다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종종 노을이 지건만 어쩐지 제겐 황사에 의한 빛 번짐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 저는 제대로 된 노을을 그 누구보다 아주 배불리 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바로, 두 구두구두구두구 쟁! 정답입니다. 군대!



제가 이래봐도 군 시절을 그 힘들다는 철책에서 근무했거든요, 아휴. 믿기 힘들만큼 희한한 곳에서 군복무를 한 케이스. 그렇다면 힘든 기억만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지요. 산 꼭대기에서 지내다 보니, 아주 야무지게 노을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시뻘건 하늘 빛이 한없이 펼쳐진 수목화라니. 제대로 된 노을은 아주 하늘만이 아니라,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 세상을 아주 시뻘겋게 만들거든요. 오로라 안 부럽습니다. 별이요. 아주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큼지막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다 선임병에게 혼쭐도 많이 냈지요, 아마. 우리 부대는 경례도 골 때렸는데, 박꿀!

뒤 저야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군 생활 중 제일 힘들다는 상병 생활만큼은 병원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제가 마산병원에서 근무했다고 놀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겠어요. 그 때 지뢰밭 사이를 오르며 근무를 서던 제 늙름했던 시절을 말하죠. 눈이 아주 초롱초롱할 수 밖에 없었던, 긴장되면서도 황홀했던 시간들입니다.

며칠 전 여의도에서는 불꽃축제가 있었어요. 역시나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동네 잔치라 그랬는지 돌이켜보니 불꽃놀이를 빼먹은 적이 없네요. 짝짝한 하늘에 폭죽이 터지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지요. 밤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반복. 올해에도 저는 가족과 함께 불꽃을 노련하게 음미했습니다. 입은 헤에 벌어진 채. 사실 진짜 죽여주는 건 그냥 맨 하늘인 건데. 노을과 별빛들, 바람이 지나간 자리, 끝 모를 철새들의 비행들, 집채만한 시베리아 독수리들, 이 모든 걸 처절하게 기억하려는 핏빛 노을인 건데..... 기회가 닿으면 그 순간을 한번 더 만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재입대는 곤란 쵸.”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ли Азиатскую беседку

Под зажигательные ритм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Азиатской беседки. Открытие беседки состоялось 5 октября и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ассказали ТИА "Острова"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Азиатская беседка - первый элемент экспозиции «Сад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на построена пр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надёжного партнё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ботсада – одного из банков.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наполнена энергичными ритмами ансамбля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ль» и изящным танцем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танцев «Ариранг». Была и вкусная часть открытия - члены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кулинар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чапчхе -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праздничной закуски на основе крахмалистой лапши с жареными овощами.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узнать рецеп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о 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блюдо, приготовленное мастерами.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сильнейших в пхумсэ

В Холмске назвали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первен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тхэквондо в дисциплине «техн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хумсэ».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В соревнование было разделено на категории «12-14 лет» и «15-17 лет».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ывали свои умения как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так и в парах и в тройках.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настроены на победу так как она позволила бы попасть в сборную коман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в одиночных выступлениях и двойках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Никита Че, Елизавета Кувалдина, Арина Корнева и Георгий Копорушкин. В тройках в



млад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золото взяла Артем Бульвин, Никита Че, Алексей Карелкин, Елизавета Кувалдина, Юлия Ким и Валерия Ким.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15-17 лет лидерами стали Пак Те Дин, Ким Гиль Су, Дмитрий Ионов, Амелия Елдошева, Алена Васильева и Анастасия Винокурова.

Документы времён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на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ходе капремонта здания

Необычную находку обнаруж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ходе капремонта здания на улице Невельской, 44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Неожиданное открытие случилось благодаря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системы отопления. Разобрав ниши и короба радиаторов, специалисты КТЦ обнаружили по-тайной шкаф, где было найдено множ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ак на японском, так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 рассказала в своём Telegram-канал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Здание на Невельской, 44а - с богатой историей. Так, в 1908 году оно служило резиденцией командующему охранными войсками. Затем в нём располагалась экспозиция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а по-



том, вплоть до 1945 года, - японская жандармерия.

С 1945-го по 2021-й год в здании находились советские и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следнее из них - военный гарнизонный суд. Теперь помещение занимает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 передаст найд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в гос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изучения и о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и и значимости находки.

На «Ярмарке мастеров» познакомили с техникой наджончхильги

4 ок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а ежегодная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Ярмарк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гра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собрала более 130 участников из числа студенто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учеников MAOU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MAOU Гимнази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MAOU СОШ №2 г. Корсаков, МБОУ 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воспитанников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СМСО «Клуб Торнадо»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К «Единство» г. Корсаков.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Институтом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Егор Умнов, выступая на открытии Ярмарки, поблагодарил организаторов за вклад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и Инна Корнеева познакомили гостей с древним искусством декорирования дерева перламутровым узором – наджончхильги, рассказали о роли в бытов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наджон» (나전) - перламутр, а чхильги (칠기) - лакированная посуда. Наджончхильги - универсальная техника, которую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чти на всём: от крупной мебели до карманных зеркал, от шкатулок до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Древнее искусство остается популярным и по сей день. Так,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



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научилась искусству прикладного декорирования у мастера, украсившего перламутром микрофон солиста популярнейшей К-поп группы BTS Пак Чимина. В этот день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мероприятия за столом ожидала своя пара деревянных палочек и набор перламутра. Все смогли освоить технику наджончхильги, украсив палочки для еды четкарак / 젓가락. Получилось просто здорово!

Дмитрий Погудав
Фото Ли Е Сика

О вклад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поговор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5 октября отмечается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это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стоялась дружеская встреч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Героями встречи ст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ёсшие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Дё Ен Де (Юрий Сергеевич) роди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1932 г.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енсан. В 10-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Закончив школу, пошел работать в шахту «Углероскуголь», где проработал 47 лет. Всю жизнь он прожил в Бошняково Углероского района. Его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отмечен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грамотами, це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и премиями. Фотография была занесена в галерею передовиков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В 1986 году Дё Ен Де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шахте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стрече дедушка Дё Ен Де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работе на шахте, а также о свое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бытность, когда являлся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ентябре 2024 г. Гвон Су Ен (Владимир Михайлович) был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вое время он был советником депутата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и. С 2006 года возглавляет компанию «Остов», на счету которой, в основном, возве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школы,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т, детсад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Он род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Бошняково, решил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шахтой. Окончил горный техникум, получил образование в Иркутском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Прошел путь от горного мастера до начальника участка. За ударный труд получил множество наград, но самая дорогая для него – это знак «Шахтерская слава». Он стал полным кавалером этого знака. Владимир Михайлович испытывает гордость, что стал корейцем на Сахалине, удостоившийся такого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В этот день знатный шахтер и строитель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ем роде, который проживает в Корее



в знаменитом Андоне.

И Че Ы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род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окончил Ростовский архитекту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работал в Сахалингражданпроекте. По его проектам в области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статусные объекты. Позже создал проектно-строительную компанию «Пирамида». Строил по своим соб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детские сады, здание Дворца правосудия и т.д.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Че Ын известен как человек, хорошо владеющий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продвигающий вопросы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в этот день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решил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м поступлении и учебе в Росто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 том, что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нельзя было выезжать на учебу в Москву и Ленинград.

На встречу собралось немало людей, которые с интересом слушали истории известных людей.

Надо отдать должное ведущей встречи Анне Че, которая умело построила беседу, задала интересные вопросы.

Виктория Б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ит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успешно ведут бизнес за рубежом, в продвижении их бизнеса в РК и инвестирован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4 октября на церемонии в Сеуле, посвященной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корейцев. Он отмечает в этом году в 18-й раз. «Точно так же, как поколение их родителей создало новую базу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следующее поколе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надежду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 отмет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Он пообещал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ет над тем, чтобы следующе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за рубежом, также могло с гордостью сохраня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а РК могла ими гордиться, - отметил Хан Док Су.

КНДР осудила НАТО за обвинени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оссией

«Организация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НАТО) - не более чем инструмент США для ведения войны - клеветает на зак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езависимыми сувере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скажая при этом суть украинского инцидент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неназва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6 ок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НАТО опубликовала заявление с осуждени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Ирана за «во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Москвы». НАТО является «продуктом гегемонистских амбиций США». «Протягивая свои шупальца к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региону, НАТО пытается найти ещё одно оправдание своему существованию». «Если НАТО продолжит попытки ущемлять достоинство, суверенит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интересы КНДР, слепо следуя за США, она будет нести пол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раг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Д КНДР.

Главы МИД КНДР и КНР обменялись посланиями

6 октября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Китая Чхве Сон Хи и Ван И обменялись посланиями по случаю 75-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Чхве Сон Хи отметила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политику, экономику и культуру. «Совмест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дела социализма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для министерст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беих стран»,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Чхве Сон Хи. В ответ Ван И отметил, что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ступили в нов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фаз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Ким Чен Ына и Си Цзиньпина. «Сохранение, укреп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итаем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это непоколебимая политика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Р», - отметил Ван И. Ранее Ким Чен Ын и Си Цзиньпин обменялись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ми посланиями.

Пианист Им Юн Чхан – лауреат премии Gramophone Classical Music Award

20-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Им Юн Чхан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престижной британской премии Gramophone Classical Music Award в категории фортепиано. Он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за альбом «Шопен: Этюды». Кроме того, он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Молодой артист года». Gramophone Classical Music Award, учрежденная в 1977 году,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наград, присуждаемых в индустрии классической звукозаписи. Её часто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эквивалент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емии Грэмми, а также называют «Оскаром для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Им Юн Чхан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цем, получившим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фортепиано. Однако ранее е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али награды в других категориях. Скрипачка Чон Гён Ха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награды дважды - в 1990 и 1994 годах, а виолончелистка Хан На Чхан - в 2003 году. Им Юн Чхан обрёл международную известность в 2022 году, когда завоевал главный при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Вана Клиберна, став самым молодым победителем эт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TikTok проверят н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Корей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намерен расследо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видеосервиса TikTok в связи с возможным нарушением законов о содейств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и защите данных. Как сообщил 7 октя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итета, TikTok автоматически требует от свои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лучать рекламу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просить у них соглас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такого контента. Видеосервис, принадлежащий китайской компании ByteDance, не делится пол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условий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политики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со своими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когда они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платформе.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компании-платформы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льзователям свободу решать, будут ли они получать маркетинговый или рекламный контент, и заранее получать согласие пользователей на отправку такого контента. Нарушители закона могут быть оштрафованы на сумму до 30 млн вон (22.300 долларов). RKI

Ким Чен Ын пообещал не нападать на Южную Коре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ил с привлекшими внимание заявлениями, подчеркнув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тив "врагов" КНДР. Тут же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хеньян не собирается нападать на Южную Корею и его просто не интересует,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Юге.

"Если враги посягнут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готовы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 подчеркнул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обороны в Пхеньяне, названном в честь самого вождя. Он добавил, что союзн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баланса в регионе, а это уже повлечет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им пообещал, что КНДР не допустит нарушения баланса сил в регионе.

Вождь тут же продолжил практику прямой крит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 которой прибегнул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Поводом для этого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Юна на Дне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К, который отмечался 1 октября и когда в Сеуле прошел крупный военный парад. Общий подход Юна был назван "ненормальной точкой зрения". Тогда, напоми-

ним, Юн пообещал КНДР "конец режима", если Пхеньян решится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против РК.

Ким Чен Ын "вернул" и мирный посол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хотя и весьма своеобразной форме.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Южной Корее нечего бояться - надо просто не пытаться устраивать провок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ть способ жить в безопасности - надо просто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отив нас военную силу", - заявил Ким, посоветовав Юн Сок Ёлю "просто не искать конфликта с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под которой подразумевалас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Ким также вновь дал понять, что КНДР 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объединени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при этом не собирается нападать на Юг. "Раньше мы много и часто говорили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Юга", об "объединении на основе вооруженной силы", но теперь нас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не интересу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мы объявили, что намерены жить с Югом просто как две отдельные страны, нас абсолютно не интересует Южная Корея... У нас абсолютно нет намерений нападать. Нас просто не волнует, что там происходит и не хотим иметь с ними никаких отношений", - заявил о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Пусане прошел крупнейший в Азии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2024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прошел 29-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инокартины из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стран мира.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 уже успел приобрести всемирную известность, став крупнейшим мероприятием данного рода в Азии и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пяти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кинофорумов мира. Проходит он с 1996 года ежегодн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октября во втором крупнейшем городе Южной Кореи, где обычно в этот период стоит великолепная сухая и теплая погода.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он стартовал 2 октября и продлился до четверга, 10 октября.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79 фильмов из 63 стран мира, включая 224 официально приглашенных фильма и 55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казов,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очен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жанров - от артхаусного кино до коммерческих блокбастеров. Особенностью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а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

ма, посвященная памяти корейского актера Ли Сон Гюна, известного по фильму "Паразиты" и трагически ушедшего из жизни в декабре 2023 года.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и широк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этом году французского кино. На BIFF-2024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57 лент с французским участием.

Стартовал BIFF показ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Восстание" режиссера Ким Сан Мана, а закрыла форум лента "Мир духов" сингапур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Эрика Ку.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фестиваля - конкурсные программы "Новые течения", Азиатская киноакадемия для молоды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Азиатский кинорынок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ндустри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введена новая награда -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для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в разделе "Wide Angle - Documentary". Эксперт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и еще на одну новинку Пуса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 появление и демонстрация фильма про K-POP.

Параллельно в эти в дни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Пусана прошли различ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BIFF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дельн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показы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Open Cinema, гд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нкурсных лен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еребежчик из КНДР угн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автобус, чтобы вернуться на Севе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который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попытался прорваться обратно в КНДР на угнанном автобусе. Беглец задержан. По его словам, жизнь на Юге оказалась слишком тяжелой, что и заставило пойти на подобный шаг.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лиции города Пхачжу,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едалеко от границы с КНДР,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1 октября. Мужчина чуть старше 30 лет в половине второго ночи угнал небольшой рейсовый автобус,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перевозок в пределах городск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Транспорт находился на парковке, при этом ключи были внутри, что и позволило его завести.

После этого мужчина направился в сторон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добрался до "моста объединения", где уже стояли армейские патрули и специальные ограждения, перекрывающие проезд в КНДР.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оенных, беглец пошел на таран заграждений, но не смог прорваться через них, застрял и был в итоге задержан.

В ход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мужчина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ытался прорватьс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ам он около десяти лет назад сбежал из КНДР и проживал с тех пор на юге Сеула. По его словам, жизнь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азалась сложной, он не смог к ней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и в итоге решил попытаться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в момент инцидента он не был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или наркотического опьянения, псих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также оценено как нормальное. Ему планируют предъявить обвинения в угон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а также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 как он намеревался попасть в соседнюю страну без офици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РК.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бывш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КНДР перебежчиков испытывают серьезные трудности, привыкая к новому для них обществу и порядкам. Проблемы усугубляются тем, что перебежчики обычно не владеют навыками, которы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читаются базовыми и минимально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более-менее приемлемую работу. К таковым относятся владение компьютером,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другие.

В итоге многие бывши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 Южной Корее могут реально претендовать лишь на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ую и непрестижную работу. Им также трудно создать семью, завести друзей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се это усложняет привыкание к новой стране. Решаются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обратно в КНДР единицы, но сложности при адаптации существуют практически у все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ам программы «Время героев» о применени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егионе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8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трек программы «Время героев». Для этого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и 83 участника первого потока первого уровня программы, все они –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удостоенные различ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гостей и рассказал о принципах выстраив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Эти знания понадобятся участникам курса, так как в перспективе именно из них буд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управленческий аппарат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В частно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елился с ветеранами цифровыми решениями и подходами,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властям – принимать более мудрые и эффективные решения.

Вас готовят к гражданской жизни, управлению страной и регионами. Мы покажем вам, как выстроена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удущем вы сможете применить эти знания,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практики в вашей профессии.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дня вы увидите, как мы применяем на практике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Все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реш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дну конкретную цель –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Именно человек, его комфорт и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являются нашими ориентирами, отражаю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властей. И такой подход мы применяем во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бизнесом и, конечно, в работе с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и их семьям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широко внедрены в у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ом и оптимизацию рабочих процессов.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властей – это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ойный уровень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а также вывест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же сегодня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4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рейтинг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о многом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благодар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жителями, слаженной и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е властей на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реш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исходя из реальных запросов граждан.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целый ряд комплексны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наладить связь между властям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и различ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Здесь также помог уже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применения проектных решений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Так, с первых дней налажены регулярные поставки грузов на передовую, организованы видео-встречи бойцов с их родными, прямую работу с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и их семьями осуществляют Комитет семей военных Отечества и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также выстроена работа на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Действуют центры «Авангард», «Воин», запущены проекты «Будь готов» и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оссии по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их близки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епло нас встретила.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был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услышать об основах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к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Мы узнали о том, как область интегрирует бережли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и какие ключевые цели развития сегодня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ориентируя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Прият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Губернатор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боте с гражданами и получению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людей, – отмечает участница программы Людмила Емельянова.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ограмма «Время героев» реализуется Высшей школ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кадем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н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готовку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омпетент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з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ля последующей работы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а так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ях. Программа предполагает обучение современным методам и технологиям управления,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е, а также личностное развитие участников. Втор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модуль стартовал 2 октября на базе Мастерской управления «Сенеж». Он будет посвящен базовым принципам формирова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бюджета страны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участникам расскажут о различных подходах и методах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дач, а также аспектах выстраивания грамотных и эффектив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служащими.

Более 500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обрати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Более 500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обрати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 арктической ипотеки», ставка по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ет 2% годовых. Такой показатель озвуч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у обеспечения жильем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л поручение соци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ам и ипотечным волонтерам провести опрос сред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их близких, чтобы узнать, сколько семей нуждаются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А также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как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им доступны.

Условия очень похожи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ипотеку. То есть,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взять больши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покупки жилья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процентами. Мы должны предложить каждому воину или его семье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У людей должна быть ясность, как и что работает. Более того, надо помочь каждой семье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потому что кроме ипотеки существуют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которых они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Это связано с рождением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членов семьи и так дале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ются вопросом улучшения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для бойцов созданы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й ипотечный кредит до 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окупку квартиры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Данной задачей мы занимаем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скольку так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яет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семьи в тот период, когд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занимается решением наш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задач. У нас больш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вартир на рынке и каждая семья сможет подобрать квартиру под свой запрос. Данный вопрос координирует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Напомн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ой могут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а также члены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ших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операции, без учета их возраста и семе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олонтеры «Сахалинской ипотеки» работают с военными и их близкими. Для каждой семьи находя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условия. На этапе заключения военного контрак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существляет финансовую выплату – порядка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Эти средства воз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на сайте sakhipoteka.ru или в ходе личного прием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Ипотеч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дом 21, офис 109.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обращайтесь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312 531.

Отметим, 2024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Такую инициативу депутатов поддерж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сегодня – сделать всё для победы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23 педагога приехал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 программе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Лучшие учителя со всей Росси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отдаленных 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с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3 педагога прошл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и прибыл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 программе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Институте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развивать сель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и привлекать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ы намерены приним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педагог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обучать наших детей в отдаленных селах, где не хватает педагог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лаг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оцпакет для учителей: устройство детей в сады и школы, выплаты за класс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 квалификацию, жилищные программы,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конкурсе 2024 года участвовали учителя из 43 регионов, включа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мирскую, Кемеровскую и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Республику Бурятию. Прошедшие отбор педагоги будут преподав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биологию, математику, химию и географию. Ирина Мирошник,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 Уссурийска, уже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в школе №5 села Троицкое.

Переезд на Сахалин для нашей семьи – смелое решение.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вызов. Мы приехали с младшим сыном, а муж и старший ребенок пока остались в Уссурийске. Живем в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в съемной квартире,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аренды мне компенсируют. Планирую взять ипотеку и остать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Нам уже выплатили подъемные, и я собираю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 рассказала Ирина Мирошник.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учитель»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С 2020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по программе 94

педагог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о продлении программы до 2030 года, что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еще больш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тдаленные регио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уду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ют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139 дв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программу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сформировали заявки на 213 дворов,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капремонте. 139 проектов прошл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и имеют шанс получить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в 2025 году. Райо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перативно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но-см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Мы уж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больше 3 тысяч подъездов. Ровно год назад мы решили, что отремонтируем и все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Мы держим свое слово перед людьми и готовы финансировать любые работы. Теперь все зависит от мэров, которые отвечают за проек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Как только будут проекты дворов – будут деньги, – пообещал губернатор.

Ремонт дв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дворы»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Район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ых покрытий, тротуаров,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ек и мест стоянок, обустройство ливневой канализации, площадок для сбора ТКО, на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возведение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и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 скамеек, оград, указателей, велопарковок и клумб.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об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овочных мест с заряд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для электриче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Как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в каждом конкретном дворе, зависит от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разрабатывают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6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уже 136,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м преобразить еще 65 дворо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обустроят более 20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тавших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реди них про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зоны отдыха у воды в Макарове, парка «Застава» в Ногликах, сквера по улице Победы в Углегорске и другие. Также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39 комплексных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завершен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более 75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осемь раз выросли темпы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мест для детей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138 общеразвивающим программам. С его помощью в театрах, медиа-центрах,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ах и музеях средн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будут созданы 3118 новых мест. Прежде темпы оснащения школ были в восемь раз ниже. В 2022-2023 годах формировались по 383 места.

Оснащение школ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Власти страны и региона уделяют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детей. Мы решили в 2024 году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эти цели из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закуплено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обучения по 138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общеразвивающим программам. Оно поступит в 64 школы в 17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юн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способност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села Соловьевк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ступило новое альпинист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 нас давно существует группа юных туристов. Мы ходим в походы, занимаемся альпинизмом. Участвуем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И сейчас мы получили 10 комплектов альпинист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но, кстати, весьма дорогое, не все родители могут сами купить его для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А благод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мы сможем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занимающихся. Дет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ерьез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лучше узнают родной край, приобретут ценный опыт, который возможно пригодится в жизни, – рассказала учитель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средней школы села Соловьевка Елена Магерова. Во внеурочное время она занимается с юными туристами.

Благодаря закупленному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борудован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созданы 47 ш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20 медиа-центров, 11 школьных музеев, 19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и семь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руж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

- 50개 국 350명 한인회장 참가

- 윤석열 대통령 영상으로 축하인사 전해

지난 10월 4일(금) 오전,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한덕수 총리,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재외동포대표 인사말(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 의장인 나인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유공자 정부포상 진수 △국무총리 환영사 △주제영상 상영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자 소감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동포의 눈부신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데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환영사에서 "동포들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당당한 주류세력으로 성장하여 한인들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라고 동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세계 곳곳의 한인사회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재외동포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총



7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김부식 국제한문화예술협회 대표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철야 재일민단 도쿄본부 고문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민식 켈거리 문인협회 고문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 조용덕 릴롱케 세종학당 학당장에게는 대통령 표창, 정운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부회장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금번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서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조성국씨가 무대에 올라 "전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늘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대한민국과 함께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인회장들의 기념 사진 촬영을 끝으로 기념식은 마쳤다.

(재외동포청 제공)

'로봇의 신' 데니스 홍 박사,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찾는다

10월22일 대학생창업경진대회서

'휴머노이드 로봇기술과 스타트업' 주제 강연

재외동포청, 벤처기업 대상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한국명 흥원서·53) 박사가 오는 10월 22~24일 전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국내외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한다. 투자포럼을 비롯해 스타트업 경연대회, 리딩 CEO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세미나, 전시회, 비즈니스 매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홍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인 로멜라(RoMeLa:Robotics & Mechanisms Laboratory)의 설립자다. 특히 인간형 로봇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석학이다.

데니스 홍 교수는 대회 개막일인 22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전북대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리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더 가까워진 미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기술과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로멜라연구소는 최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AI)로봇대회에서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스로를 'AI 유저(이용자)'라고 말하는 홍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2족 보행 로봇 아르테미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AI를 적용한 로봇공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박사가 강연하는 대학생창업경진대회는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창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대회의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다.

예선을 통과한 전북지역 대학(원)생 6팀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심사하고 우승팀 두 팀에게는 각각 재외동포청장상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글로벌 한상드림 재단*이 수여하는 소정의 격려금(생활비성)도 부상으로 제공된다. ※ 동포 경제인들이 모국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출범한 비영리법인으로 청년들에게 장학금 제공,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외동포청은 홍 박사의 강연과 함께 청년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막일 이튿날인 10월 23일(수)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전북대 진수당 352호실에서 연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국내외 벤처캐피탈(VC) 앞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로, 수상 기업들에게는 재외동포청장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무엇보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본선 진출기업 모두에게는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글로벌(캐나다) 진출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또 오후 1시30분부터 4시40분까지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1층)에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과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참석하는 포럼과 네트워킹 행사도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바오로홀에서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 소개 △글로벌 CEO의 특별강연 △현직 취업전문가가 알려주는 해외 인턴십 가이드 △동포기업 인사담당자의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로 스물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서 금번 행사는 대회 최초로 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올해 대회가 대학에서 열리는 최초의 대회인만큼, 이번 대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청년들과 경제인의 만남'을 제시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재외동포청 예산 고작 1천억...

예산 1조 시대 열어야 재외국민 대한민국 인구의 14%... 유권자는 5% '한류'는 재외동포가 뿌린 씨앗...한국 브랜드 제고

올해로 집권 3년차인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동포 사회에선 '재외동포청 개청'을 으뜸으로 꼽는다.

윤 대통령도 취임 후 지금까지 수십여차례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재외동포사회의 반응은 차갑고 싸늘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동안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됐다.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온 350여명의 한인회장들은 이번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특히 '나의 조국, My Korea'(부제: 한국 발전상 알리기), '지역별 현안토론회' 등에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행사 기간 내내 재외동포청이 한인회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재외동포청 예산은 작년 대비 391억원 오른 1067억원.

한인회장들은 "재외동포청 개청은 73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러려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세종학당재단 예산이 617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주관하는 부처인 재외동포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지역별 현안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A지역 한인회장은 "동포청에서 한인사회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반토막가량 줄어들고, 지원 방식도 형평성을 잃어 (오죽하면)그 이유를 AI에게 물어봤다"며 동포청의 정책을 비꼬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지난 10월 4일, 한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20여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취임식 자리에서 재외동포 예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개청되면 1만불 지원하던 한인회 사업비가 2만불, 3만불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만불 지원이 8000불로 깎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 유권자수와 비슷한 260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상북도 예산이 약 34조원이다"며 "730만 재외동포 예산을 3

년 이내에 1조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정부 및 국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고 신임회장은 "대한민국 대선이나 총선 때 재외동포의 투표율이 10% 이내다"며 재외동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자료(2024.9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구는 5130만명이며 재외동포는 2022년 기준 708만명(2023년 10월 재외동포청 자료)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는 한국 전체인구의 14% 수준이다. 또한 20대 대선 기준 유권자 수 역시 재외국민은 한국(4420만명)의 5% 수준인 220만명(추산) 가량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정부예산은 656.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청에 배정된 예산이 바로 1067억원이다. 정부예산의 0.016% 수준이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한인회장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의 예산을 늘리는데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애로를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재외동포연구원 한 관계자는 "한류가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730만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김치찌개 먹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그 과실을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따먹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류문화 전파 및 민간외교관으로서 기여한 무형의 자산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근 5년간 37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 연구기관은 향후 10년 간 약 273조원의 한류효과를 볼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인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연간 수만명의 재외동포들이 달러를 들고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규모도 천문학적인 액이 될 것이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가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Золотая россып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большом шатр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тва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Золотая россыпь".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щественной зоны.

Мероприятие порадовало своим многообразием, отражающим богатую палитру талантов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Зрител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наслажда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ми народного во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Надежда", во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ши песни", народного хора ветеранов и детей войны "Русская душ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Мир", хор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Рябинушка".

Фестиваль стал отлич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щения, гд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могло 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и находить новых друзей. Теплая атмосфера сделала это событие по-настоящему незабываемым.

Сахалин의 영화감독, <발견의 땅> 축제에서 수상

<발견의 땅> 축제 결과가 9월 말에 발표되어 сахалин주 문화고문서부의 논나 라브릭 장관이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영화감독에게 축하했다.

9월 26일 러시아 연방 사회원에서 <발견의 땅> 지리적 대표명소들의 축제가 처음 열린 가운데 행사에 국내 35개 지역에서 250명이 참가했다.

сахалин주는 9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다. '유럽인-아시아인' сахалин 영화산업연맹의 창작기술로 바체슬랍 제냐코브 영화감독의 지도 아래 제작된 <나즈막한 산> 제목의 сахалин의 자연에 대한 다큐 영상이 <지리적 독특성, 지역의 자연적 아름다움>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 작품은 <발견의 땅> 축제

의 영상 플랫폼에 <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작품 목록에 포함되었다.

Фильм режиссера с Сахалина занял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на фестивале «Земля открытий»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подвели итоги фестиваля «Земля открытий». В этот раз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Нонна Лаврик поздравила режиссера фильма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26 сентября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геобрендов «Земля открытий».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50 гостей из 3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отмечена в девяти номинациях.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природе Сахалина «Останец», созданны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режиссера В. Денякова в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Европеец-азиат» Сахалинского кинодосуг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природная красота территории». Его включили в коллекцию «Посмотри, какая страна!» на видеоплатформе фестиваля «Земля открытий».

사기꾼들,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서 1,500만 루블리 갈취

지난 주말 сахалин주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사기꾼들에 당해 총손실액이 1,500만 루블리에 달했다. сахалин 주민들은 연방보안국과 투자제안을 사칭한 자들과 친절한 서비스의 이야기에 함박 속았다고 сахалин주 러시아 내무국이 전했다.

가장 흔한 사기수법 중 하나는 허위투자였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여성 주민(55세)은 투자로 210만 루블리를 투입한 후 그녀의 투자계정이 차단되었다. 심지어 사기꾼은 투자금 인출을 위해 지인을 끌어들여 68만 5천 루블리를 더 이체하도록 설득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41세의 сахалин 여성으로 그녀에게 연방보안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사기꾼으로부터 은행 저축금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752만 루블리를 이체

하도록 종용했다. 이 자금 중 3백만 루블리 이상은 그녀가 은행대출로 받은 돈이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29세 남성은 사기꾼의 지시로 주식거래소에서 수익을 얻으려 하다가 450만 루블리를 잃었고, 코르사코브의 여성(31세)은 '심카드 갱신'이라는 메시지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서 메신저로 코드를 얻어내고는 피해자의 '고스우슬루기' 계정에 접근해 '안전계좌'로 50만 루블리를 이체하도록 설득했다. 경찰은 모든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며, 범죄사건으로 기소해 수사하고 있다.

Мошенники выудили у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более 15 млн рублей

За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ков стали жители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потеря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1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ы «клюнули» на истории с ФСБ, инвестициями и интим-услугам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схем обмана стали лжеинвестиции. Так 55-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ложила 2,1 млн рублей в инвестиции, после чего ее счет заблокировали. Для «вывода» средств мошенники убедили ее привлечь знакомого, который перевел им еще 685 тысяч рублей.

Другой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стала 41-летняя сахалинка. Ей позвонили лжесотрудники ФСБ и убедили перевести 7 520 000 рублей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их от мошенников. Из них более 3 млн рублей она взяла в кредит.

29-летни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терял 4,5 млн рублей, пытаясь заработать на бирже по инструкции мошенников. 31-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стала жертвой обмана под предлогом «продления сим-карты». Мошенники получили от нее код из СМС, после чего получили доступ к ее аккаунту на «Госуслугах» и убедили перевести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Полиция проводи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всем фактам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 | | |
|---|---|--|--|--|--|
|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